

항균 효과·원적외선 방출 ... 아토피 안녕 ~

■ 해남 삼산면 채종신·정원경 부부 황토집

해남 대흥사 방면으로 향하다 고정희 시인의 생가 쪽으로 들어서면 길가에 다소 특이한 흙집이 눈에 들어온다. 채종신(40)·정원경(39)씨 부부가 사는 전원주택이다.

채씨 부부는 지난 2007년 11월 해남읍에 있는 아파트를 떠나 이곳으로 들어왔다. 2남 1녀를 둔 자녀들이 천식과 아토피 등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인 해남은 모든 것이 청정지역이긴 하지만, 아파트 등이 밀집돼 있는 해남읍은 사정이 다르다.

특히 막내 승엽(7)군의 아토피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이곳으로 이사 온 뒤 아토피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한다.

전남에서 유일한 짚풀공예가이기도 한 채씨는 아들 승엽군이 아토피와 천식 때문에 밤잠마저 제대로 이루지 못하자, 고민 끝에 직접 흙집을 짓기로 결심했다.

2006년 12월 삼산면 창리에 있는 땅 900평을 평당 4만5천 원 씩에 매입한 채씨는 이듬해 4월부터 본격적인 흙집 짓기에 들어갔다.

채씨는 집 설계에서부터 자재 구입, 집 짓기까지 모든 공정을 자신의 손으로 해냈다.

먼저 집터에서 나온 흙을 모은 뒤 짓는 재료로 사용했다. 채씨는 부지 매입시 황토가 많은 곳을 물색했다고 한다. 200여년의 황토가 들어갔는데, 10t 정도가 부족해 바다 공사 때 인근에서 4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설계는 건평 30평에 방 3개, 욕실 2개, 거실, 부엌을 기본으로 한 동그런 원형집을 선택했다. 첫 공적인 기초쌓기에서는 40cm 두께의 흙벽을 쌓았고, 단단한 벽을 만들기 위해 발로 황토 다지기만 수만 번을 반복했다.

흙벽의 내구성과 통풍성 강화를 위해 벽 사이에는 통나무를 잘라 넣었다.

가장 어려운 공사는 지붕 올리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힘들어 인부 1명

과 함께 공사를 했다. 모든 공정에는 국내산 편백 나무를 사용했다. 편백나무로 서까래를 얹고, 15cm 두께의 흙을 쌓은 뒤 방수포를 깔았다. 지붕은 인근 목재소에서 가져온 나무 껍질로 덮었다.

황토 흙집의 백미는 아궁이지만, 채씨는 이를 과감히 포기하고 전기 보일러를 설치했다. 집이 흙집으로는 넓은 30평 규모인데다, 관리 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배에도 신경을 썼다. 황토를 걸러내 고구마 녹말을 섞어 발랐는데, 찢어지는 현상이 반복돼 황토와 참쌀 풀을 섞어 발랐더니 같은 현상이 사라졌다고 한다.

공사시작 8개월 만에 완성한 흙집으로 이사를 온 가족들의 반응도 대만족이다.

설계·자재 구입 등 모든 공정 직접 해
통풍 잘 되게 흙벽 사이에 통나무 넣어
짚풀 체험장 등 조성 민박촌 운영 계획

아내 정씨는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너무 즐거워한다”면서 “특히 아이들을 괴롭혀 온 아토피가 사라져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불편한 게 없는 것은 아니다. 읍내 생활권과 승용차로 20여 분 정도 떨어진 탓에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대표적 불편 사례다. 이는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아내 정씨의 몫이다.

채씨 부부는 앞으로 또 다른 흙집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다.

집 주변에 짚풀 체험장과 함께 흙집 6동을 지어 민박촌을 운영해 볼 생각이다. 물론 이 모든 작업은 채씨 혼자서 해낼 계획이다.

채씨는 “흙이 숨을 쉬기 때문에 습도 조절은 물론 항균, 탈취효과가 뛰어나다”면서 “특히 보온성이 좋고 원적외선 방출로 아토피, 천식, 신경통 등에도 탁월하다”며 흙집 예찬론을 펼쳤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채종신·정원경씨 부부가 8개월 동안 직접 지은 황토집에서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

고정희·김남주 시인 생가 있어 '문학 순례지' 인기

■ 주변 가볼만한 곳

해남군 삼산면은 여성운동가인 고정희 시인의 생가와 70년대 유신독재에 맞서 싸운 김남주 시인의 생가가 위치한 곳이다.

1979년 첫 시집 '누가 홀로 술 틀을 밟고 있는가'를 비롯한 신라원 기행(1981), 초혼제(1983), 눈물꽃(1986), 여성해방출사표(1990) 등 주목받은 시집을 펴낸 고정희 시인은 여성운동가로 적극 활동하다 1991년 6월 지리산 등반도중 실족사

했다.

고정희 시인의 집에서 승용차로 5분여 거리에 살았던 김남주 시인은 격변의 시대인 70년대 전남대 영문과에 재학하면서 3선개헌 반대 등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70년대 유신독재체제에 맞서 갈날 같은 시들을 발표하다 80년대를 옥중에서 보냈다.

그는 옥중에서도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 등의 시집을 발표했다. 매년 이 두 시인의 생가를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젊은 문학도들에겐 중요 순례지로 꼽힌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채종신·정원경씨 부부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오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관악산문빈정사 문화관광사업단

광주·전남 기능장학 **大山프리모님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프리모** HAVER

585·800 "사랑세상 발명"

가발

초슬림!!

귀여운 분위기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61-714-0260, 071-402-1100
팩스 061-714-0260, 071-402-1100